

**학교급식 생산성 향상을 위한 행동과학적 연구**

신은경\*, 이민지, 이연경. 경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Behavioral science research for productivity improvement in school foodservice**

Eun-Kyung Sin, Min-Ji Lee, Yeun-Kyung Lee,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aegu, Korea.

최근 학교급식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급식종사자가 좋은 직무환경에서 자신의 직무에 가치와 자부심을 느끼며 만족하고 몰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동과학 연구는 동기유발 이론이 대두되면서 직무 만족요인과 불만족요인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중요하게 다루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학교급식 영양사를 대상으로 직무특성을 조사하여 양적, 질적 생산성의 지표가 되는 직무만족도 및 조직몰입도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직무가치관을 파악함으로써 급식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대구·경북 지역 학교급식 영양사 401명을 대상으로 직무특성, 직무만족도, 조직몰입도 및 직무가치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연령은 26~30세(65.3%)가 가장 많았고,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졸업자가 59.1%로 가장 많았다. 월 평균 임금은 70~100만원 수준(65.2%)이 거의 대부분이었으며, 급식유형은 도시형이 51.6%, 농·어촌형이 48.4%였고, 급식 경영 형태는 직영이 71%로 가장 높았다. 학교급식 영양사의 직무특성 요소의 점수는 직무파악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율성, 다양성, 직무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 피드백, 친교의 순이었다. 직무특성 요인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친교는 모든 직무특성요인과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직무만족 측정요소 중 동료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급여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영양사들은 직무자체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그 다음이 급여, 승진의 순이었다. 학교급식 유형별로는 직무만족도에 차이가 없었으며, 연령, 총 근무기간과 월 평균 임금이 증가할수록 급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며,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근무시간이 길수록 낮아졌다. 학력이 높을수록, 총 근무기간이 길수록, 월 평균 임금이 상승할수록 승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직무만족도는 직무특성 중 직무의 자율성, 피드백, 친교와 상관성이 높았으며 자율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도는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임금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영양사의 직무가치관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직무가치는 근무경력이 2년 미만과 10년 이상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2년에서 5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낮았고, 연령은 41세 이상, 급여는 150만원 이상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육구와 야망은 근무시간이 44시간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과거 근무했던 기관이 학교인 경우가 가장 높았고, 복지시설인 경우가 가장 낮았다.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가 2-5년 미만인 경우보다 직무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고 근무시간이 44시간 미만인 경우는 44시간 이상인 경우보다 직무를 필요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자기만족은 5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높았고, 10년 이상인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자아개념은 근무시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와 41세 이상인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5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